

전자제품 수출국가 및 품목 분석

본회 전자산업연구소
소장 윤동훈

1 조사 배경과 목적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의 수출이 금년 들어서 7개월째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자제품의 수출은 점유율이 크게 낮아짐으로써 전체 수출 감소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기나 교역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을수록 미시적 관점에서 수출이 이미 증대하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전자산업연구소에서는 수출에 대한 비관적 분위기를 속에서도 수출이 증대하고 있는 품목이나 국가를 발굴함으로써 수출 활성화의 실마리를 살펴보는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조사는 산업자원부의 무역분류인 MTI방식을 이용하였다.

2 수출 개황

작년말부터 내리막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이 최근 2달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제품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컴퓨터 등 IT 관련 제품들의 수출이 큰 폭으로 줄면서 비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900억 5,8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3% 감소하였다. 하지만, 전자제품의 수출은 301억 6,200만달러에 불과, 18.6%나 감소하였다. 사실상 총수출에서 전자제품의 수출을 제외하면 나머지 수출은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전자제품의 비중도 작년의 38.8%에서 금년에는 33.5%로 줄어들었다.

여기에도 9월 11일에 발생한 미국의 테러사태 이후 항공, 선박 등에 대한 보안검색이 강화되면서 물류 이동이 지체되고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등 교역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10월 초부터 시작된 미국의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응징 공격 및 테러범들의 생화학테러 보복 등 이번 전쟁이 과거 국가 정규군끼리의 전쟁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 세계시장의 심리에 매우 불안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이동 인구의 대폭적인 감소로 말미암아 미국 등 주요국의 항공산업이 부도위기로까지 몰리고 있어, 각국 정부가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에 일파만파의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세계 무역환경을 더욱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선진국에 대한 교역이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동시에 세계 IT산업의 불황에다 일련의 테러전쟁과의 부작용까지 겹치

는 설상가상의 심각한 고비를 맞고 있는 셈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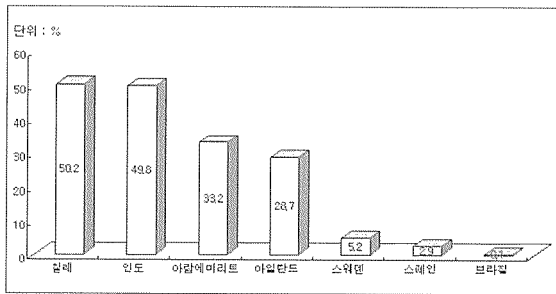
3 수출증가국 및 품목 조사

지난해 전자제품의 수출이 1억달러 이상 되는 32개국(이들 국가로의 수출은 전자제품의 수출총액 667억달러의 96.3%에 달함)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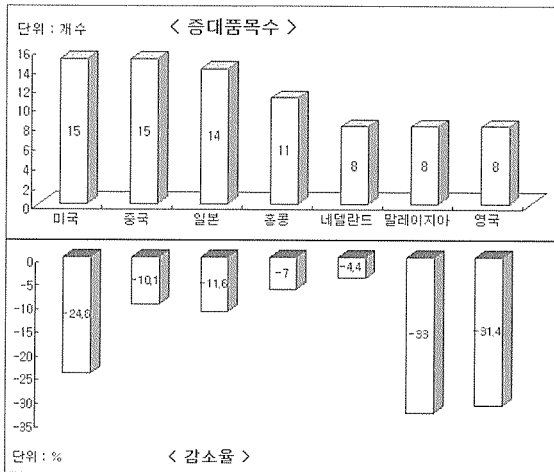
첫째,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전자수출이 증가한 국가는 7개국에 달하고 있다.(표1 참조)

1위는 전년 동기보다 무려 50.2% 증가한 칠레로 나타나고 있다.

[도표 1] 전자수출 증가국



[도표 2] 전자수출 증대품목수 및 감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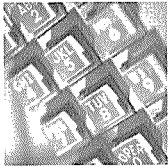


칠레로의 전자수출은 1억 521만달러에 달하였다. 2위는 2억 3,203만달러로 49.8% 증가한 인도이다. 3위는 3억 6,984만달러로 33.2% 증가한 아랍에미리트이다. 이어 4위인 2억 8,053만달러로 28.7%로 증가한 아일랜드이고, 5위인 스웨덴으로 5.2% 증가한 8,460만달러에 달하였다. 6위인 스페

[표 1] 국가별 전자수출 증감

(단위 : 천불, %)

구분	국가	2000년 7월 누계 금액	2001년 7월 누계 금액	증가율
1	태국	461,497	401,101	-13.1
2	스웨덴	80,429	84,606	5.2
3	핀란드	276,804	190,648	-31.1
4	아랍에미리트	277,638	369,848	33.2
5	중국	2,133,947	1,917,848	-10.1
6	인도	154,861	232,032	49.8
7	벨기에	113,959	93,368	-18.1
8	스페인	286,986	295,277	2.9
9	독일	1,553,950	1,141,389	-26.5
10	일본	3,951,394	3,492,141	-11.5
11	브라질	433,403	433,792	0.1
12	미국	10,401,223	7,822,700	-24.8
13	인도네시아	329,395	326,669	-0.8
14	네덜란드	728,561	696,801	-4.4
15	터키	195,699	78,255	-60.0
16	대만	3,018,551	2,060,129	-31.8
17	아일랜드	217,969	280,532	28.7
18	싱가폴	2,118,811	1,640,917	-22.6
19	홍콩	2,337,900	2,174,290	-7.0
20	사우디아라비아	117,285	110,431	-5.8
21	영국	1,794,082	1,231,344	-31.4
22	캐나다	259,841	209,849	-19.2
23	오스트리아	62,686	60,947	-2.8
24	프랑스	473,076	327,530	-30.8
25	멕시코	705,907	579,756	-17.9
26	오스트레일리아	359,689	350,442	-2.6
27	아르헨티나	121,617	88,506	-27.2
28	포르투갈	85,075	37,439	-56.0
29	이탈리아	254,162	213,829	-15.9
30	칠레	70,064	105,219	50.2
31	말레이시아	1,260,168	844,744	-33.0
32	필리핀	1,053,151	707,195	-32.8



전자산업동향 조사보고서

[표 2] 전자수출 증대품목

(단위 : 천불. %)

구분	코드	품목명	2000년 7월 누계 금액	2001년 7월 누계 금액	증가율
1	711210	공중통신용교환기	416	18,480	4,341.8
2	733930	접시세척기 및 부분품	94	3,067	3,166.5
3	739210	TV게임기	91	1,737	1,804.5
4	711510	키폰	310	2,673	763.6
5	7294	전기용 탄소제품	235	1,007	327.9
6	733210	난방 및 가열기기	5,577	22,665	306.4
7	733920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903	2,700	198.9
8	714120	중형 및 대형컴퓨터	16,880	40,984	142.8
9	726	반도체제조용사진판	7,545	17,882	137.0
10	732330	카세트	43,948	97,477	121.8
11	725690	축전지 부분품	1,121	2,383	112.6
12	713910	현미경 및 회절기기와 동부분품	3,240	6,836	111.0
13	7134	자동판매기 및 부분품	1,967	4,075	107.2
14	711390	기타 방송통신기기	61,364	122,421	99.5
15	7321	라디오	1,581	3,103	96.3
16	713510	X선기기 및 부분품	8,135	15,742	93.5
17	724490	라디오용 튜너	38,893	72,379	86.1
18	725110	오디오헤드	1,184	2,176	83.8
19	739220	기타의 전자식 게임기	2,810	5,063	80.2
20	729190	기타 영구자석	5,439	9,621	76.9
21	732390	기타 녹음기	42,557	72,091	69.4
22	711310	광전송장치	1,272	2,121	66.7
23	7143	소프트웨어	45,858	73,786	60.9
24	712190	기타 무선전화기	22,885	36,662	60.2
25	711290	사실용교환기	4,285	6,736	57.2
26	711590	기타의 유선통신기기	20,392	30,976	51.9
27	7222	자전관	43,642	58,480	34.0
28	729390	계전기 부분품	1,416	1,874	32.3
29	723990	축전기 부분품	10,555	13,806	30.8
30	712990	기타 무선통신기기 부분품	518,744	668,142	28.8
31	712390	수상기	83,362	107,203	28.6
32	733220	전열식 이송기기	3,249	4,055	24.8
33	722990	기타의 전자관부품	97,229	116,577	19.9
34	7216	실리콘웨이퍼	86,388	102,629	18.8
35	729310	계전기	19,135	22,541	17.8
36	712130	휴대용전화기	2,863,258	3,367,191	17.6
37	725390	건전지 부분품	1,171	1,376	17.5
38	713390	기타 사무자동화기기 및 부분품	84,190	98,165	16.6
39	714220	HDD	257,310	299,251	16.3
40	734130	방전등	22,311	25,814	15.7
41	733190	기타 회전기	94,154	104,888	11.4
42	722950	기타의 음극선관부품	63,016	69,822	10.8
43	712320	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	238,607	262,945	10.2
44	729990	텔레비전부분품	388,851	425,792	9.5
45	733910	가습기	1,600	1,733	8.3
46	733120	세탁기	202,105	217,061	7.4
47	734120	필라멘트전구	33,184	35,606	7.3
48	733990	이미용기기	13,578	14,556	7.2
49	712410	위성방송수신기	231,385	245,962	6.3
50	714280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	41,181	43,611	5.9
51	725920	교류전동기	57,277	60,542	5.7
52	712310	텔레비전카메라	88,053	92,632	5.2
53	714240	프린터	220,979	232,028	5.0
54	733140	선풍기 및 환풍기	5,608	5,793	3.3
55	733110	냉장고	468,676	479,924	2.4
56	734290	기타 등기구	43,729	44,516	1.8
57	723120	가변식저항기	12,051	12,172	1.0

[표 3] 각국의 품목별 전자수출 증가

< 중국 >

(단위 : 천불, %)

코드	품목명	2000년 7월 누계 금액	2001년 7월 누계 금액	증가율
714120	중형 및 대형컴퓨터	260	16,617	62854
714110	소형 및 개인용컴퓨터	1,456	9,981	5856
713690	의료용기기 및 부분품	1,622	6,907	3258
727	액정디바이스	528	2,245	3254
714270	데이터디스플레이장치	10,756	34,795	2235
712990	기타 무선통신기기 부분품	41,014	129,687	2162
729290	마이크로폰, 스피커 복합세트	1,210	3,603	1978
711590	기타의 유선통신기기	733	2,157	1944
712310	텔레비전카메라	487	1,311	1692
729190	기타 영구자석	2,687	6,991	1602
732410	일반컴포넌트	1,974	4,970	1518
714240	프린터	6,240	14,058	1253
725610	축전지	502	1,081	1152
732900	기타의 음향기기 부분품	98,073	209,189	1133
722990	기타의 전자관부품	41,352	86,425	1090

< 미국 >

(단위 : 천불, %)

코드	품목명	2000년 7월 누계 금액	2001년 7월 누계 금액	증가율
711210	공중통신용교환기	197	9,764	48541
739210	TV게임기	27	1,308	47339
711510	키폰	70	1,448	19806
7321	라디오	191	1,862	8769
732390	기타 녹음기	6,679	25,128	2762
739290	전자식 게임기 부분품	3,373	12,498	2705
726	반도체제조용사진판	2,206	7,831	2550
724410	천연색 텔레비전용 튜너	321	1,044	2255
733220	전열식 이용기기	392	1,247	2178
725130	컴퓨터헤드	693	2,158	2112
711590	기타의 유선통신기기	2,112	4,895	1318
733210	난방 및 가열기기	693	1,535	1214
714120	중형 및 대형컴퓨터	3,391	7,433	1192
711310	광전송장치	547	1,162	1126
713910	현미경 및 회절기기와 동부분품	2,837	5,815	1050

< 일본 >

(단위 : 천불, %)

코드	품목명	2000년 7월 누계 금액	2001년 7월 누계 금액	증가율
733920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73	1,825	24156
712510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60	1,285	20444
724490	라디오용 튜너	1,899	23,800	11531
721290	1W이상의 트랜지스터	183	1,767	856
725310	외용적300cm 이하 건전지	819	7,139	7712
711390	기타 방송통신기기	4,659	40,322	7655
714280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	1,734	12,823	6993
734130	방전등	535	3,441	5436
722910	디플렉션 요크	3,535	21,327	5033
732330	카세트	8,705	44,667	4131
733210	난방 및 가열기기	897	3,625	3041
734120	필라멘트전구	846	3,234	2824
713390	기타 사무자동화기기 및 부분품	5,819	15,327	1634
723910	고정식축전지	18,697	44,368	1373

< 홍콩 >

(단위 : 천불, %)

코드	품목명	2000년 7월 누계 금액	2001년 7월 누계 금액	증가율
7143	소프트웨어	141	1,151	7156
713390	기타 사무자동화기기 및 부분품	1,766	11,988	5788
7114	전신기기	188	1,043	4542
714260	키입력장치	184	1,013	4507
729310	계전기	474	1,872	2950
7132	정보보호기기 및 부분품	1,540	5,432	2527
714270	데이터디스플레이장치	13,000	35,660	1743
729290	마이크로폰, 스피커 복합세트	1,048	2,638	1517
714290	컴퓨터 부분품	38,323	92,053	1402
714110	소형 및 개인용컴퓨터	7,378	15,242	1066
714280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	1,778	3,589	1019



전자산업동향 조사보고서

인은 2.9% 증가한 2억 9,527만달러에 달하였고, 끝으로 7위인 브라질은 0.1% 증가한 4억 3,379만달러를 나타내었다.

반면, 30% 이상 감소한 국가는 8개국에 달하고 있다. 터키가 60.0%의 감소로 1위를 차지하였고, 포르투갈은 56.0%의 감소로 2위를 랭크하였다. 이들 두 국가로의 전자수출이 50% 이상 줄어들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33.0%, 필리핀이 32.8%, 대만이 31.8%, 영국이 31.4%, 핀란드가 31.1%, 프랑스가 39.8%로 각각 3위에서 8위가 되었다.

10억달러 이상 전자제품 수출이 이루어진 나라를 살펴보면, 미국으로의 전자제품 수출이 78억달러로 24.8% 감소하였고, 일본으로의 수출이 34억달러로 11.6% 줄어들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19억달러로 10.1%, 독일으로의 수출은 11억달러로 26.5%, 대만으로의 수출은 20억달러로 31.8%, 싱가포르의 수출은 16억달러로 22.6%, 홍콩으로의 수출은 21억달러로 7.0%, 영국으로의 수출은 12억달러로 31.4% 각각 감소하였다.

둘째,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전자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57개로 집계되었다. 이 중 산업용전자기기 분야에서 22개(38.5%), 가정용전자기기 분야에서 18개(31.5%) 그리고 전자부품 분야에서 17개(29.8%)를 각각 기록하였다.(표2 참조)

이 가운데 수출증가율이 배 이상 되는 품목은 13개이며, 이 가운데 3개품목은 1,000% 이상 되는 획기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중 통신교환기(MTI 711210)는 4,000% 이상, 접시 세척기 및 부분 품(MTI 733930)은 3,000% 이상, TV게임기(비디오게임, MTI 739210)은 1,800%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그리고 키폰(MTI 711510)이 763.6%, 전기용 탄소제품(MTI 7294)이 327.9%, 난방 및 가열기기(MTI 733210)가 306.4%,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MTI 733920)가 198.9%, 중형 및 대형컴퓨터(MTI 714120)가 142.8%, 반도체제조용사진판(MTI 726)가 137.0%, 카세트(MTI 732330)가 121.8%, 축전지부분품(MTI 725690)이 107.2% 각각 증가하였다. 이들 품목은 100%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IT분야 전체 수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IT관련품목이 수출 증 대를 주도, 세계경제가 IT 산업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수출이 증가한 57개 품목 가운데 43.8%인 25개품목이 IT관련 제품이다.

셋째, 각국별로 품목 수출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186개품목이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15개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14개, 홍콩이 11개로 이들 4개국이 29.5%를 점하고 있음. 이어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그리고 영국이 각각 8개씩 이르고 있음(표3 참조).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미국으로의 전자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하였으나, 공중통신용 교환기(711210)의 수출은 976만달러로 4,854% 증가한 것을 비롯해 TV게임기(739210)가 4,753%, 키폰(711510)이 1,980% 크게 늘어났다. 이어 기타 녹음기(732390)가 276%, 전자식게임기부분품(739290)이 270.5%, 반도체제조용사진판(726)이 255% 등 15개 품목이 100% 이상 늘어났다.

중국의 경우 19억 1,784만달러로 10.1% 전자수출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중형 및 대형컴퓨터(714120)가 1,661만달러로 6,285%, 소형 및 개인용 컴퓨터(714110)가 585.6%, 의료용기기 및 부분품(713690)이 325.8%, 액정디바이스(727)가 325.4%, 데이터디스플레이장치(714270)가 223.5% 등 15개 품목이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34억 9,214만달러로 11.6% 전자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733920)가 182만달러로 2,415% 증가하였고,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712510), 라디오용튜너(724490), 기타 반송통신기기(711390), 카세트

(732330) 등 14개 품목이 늘어났다.

홍콩으로의 전자수출은 21억 7,429만달러로 7.0% 감소하였으나, 소프트웨어(7143)가 715% 증가하였고, 기타 사무자동화기기 및 부분품(713390), 데이터디스플레이장치(714270), 소형 및 개인용컴퓨터(714110) 등 14개 품목이 증가하였다.

10개 이상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이들 국가는 모두 우리의 전통적인 수출대상국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금년들어 4개국으로의 전자수출이 감소하였고 특히 미국으로의 전자수출이 큰 폭 줄어들어 전반적인 수출분위기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전체 그림속에서도 세세한 부분까지를 점검하여 본다면 희망적인 관찰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수출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전체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우리의 주력 대상국중에서도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품목이 10개 이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4 정책적 시사점

수출시장 다변화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을 이번 조사분석의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시장이 아니어서 이름도 잘 익지 않은 칠레, 아일랜드 같은 나라로의 전자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마케팅도 강화하면서 마이너스시장의 공략을 추진하는 확장적 시장 다변화 노력을 배가한다면 우리 경제의 역량이 한단계 격상될 수 있는 바람직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또한 일부 선진국에의 높은 의존도를 줄이고 경기부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특히, 선택과 집중의 수출전략을 세심하게 구사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증가율 1위인 칠레를 살펴보면, 무선 전화기의 수출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

라의 무선 통신 단말기와 관련기기의 인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선호를 지속적이며 확산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집중적인 마케팅지원대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IT산업은 저조한 상태에 빠져 있으나, 정보화 디지털화로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들은 정보통신 관련 제품이나 소재, 부품의 수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민간과 정부가 각국의 IT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역적으로 한 나라의 정보화가 진전될 때 근접국가도 정보화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 이른바 인접효과를 사전에 예상하여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수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전반적인 교역은 위축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틈새시장이나 신시장의 개척 그리고 전략적 품목의 발굴이 우리의 수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기술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디지털제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일본 등 경쟁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신속하게 구축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세계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무선 통신기기의 경우처럼 내수시장을 진작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 향상이나 품질 제고에 진력할 수 있는 친기업적 환경을 계속 조성하여 나가야 한다.

최근 대내외 총체적 여건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으나, 개별적인 시장접근식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대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으므로, 주도면밀하게 세계 전자시장의 분할 청사진을 추진한다면 경쟁국에 비해 승산이 있는 게임에 임할 수 있는 것이다.